

완도 개매기체험 '원더풀'

관광객 1000여명 찾아 피서·맨손고기잡이 체험

외국인들도 참가... 새 관광자원 가능성 보여줘

완도군이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사업으로 추진한 달도마을 맨손고기잡이(개매기)와 갯벌 체험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완도군 군외면 달도마을 테마공원 해변에서 열린 체험행사에 1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피서와 고기잡이 체험을 즐겼다. 달도 테마공원 해변은 조수간만에 따라 고기잡이는 물론, 바자락, 꼬막

캐기 등 체험거리가 풍부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맘껏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체험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손자·손녀와 함께 새벽 4시에 울산을 출발했다는 관광객 임모(여·67세)씨는 "타 지역 갯벌 체험행사와 달리 물고기와 조개를 많이 건질 수 있었고 접근성과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짧은 시간에도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행사에는 특히 1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해 직접 잡은 생선을 회를 먹으며 완도의 어업문화가 신기한 듯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완도군 관계자 "이번 개매기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잡은 송어·전어·도다리 등 물고기가 웅덩이 1대 분량은 거뜬했다"며 "완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수시개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기간에도 개매기와 갯벌 체험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F1 모형설계 과학캠프'

목포대 9일까지 운영

목포대학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과학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F1 모형 자동차 설계 과학 캠프를 개설했다.

이번 과학 캠프는 9일까지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F1 in Schools 기술지원센터 및 기계공학과 실험실 등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캠프 참가자는 전남지역 중·고교생 50여명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차 설계 및 제작 과정 실습을 체험하고 캠프 마지막 날 손수 설계 제작한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경주대회를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들을 특히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공학설계와 미적디자인 제작 설계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후 20분의 1 크기의 F1 모형 자동차를 완성하게 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무안서 전국 각설이 품바 큰잔치

"전국의 내로라하는 각설이가 한자리에 모인다."

무안군은 제8회 전국 각설이 품바 큰잔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무안군 일로로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일로품바보존회 주관으로 열리는 큰 잔치는 각설이 품바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품바경연대회, 각설이 품바 마당극, 품바노래자랑, 관광객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각설이패션쇼와 사물놀이, '동동구루무' 공연, 품바난타체험, 페이스페인팅 등도 준비됐다. 품바는 일제 강점기와 8·15 해방기에 살다가 거의 전장근의 나

눔 이야기를 통해 민초들이 겪었던 시대의 아픔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마당극이다.

1982년 무안 일로에서 고(故) 김시라(1945~2001)에 의해 '진애하는 각설이 동지 여러분(품바)'이 초연된 후 국내외에서 5000회가 넘는 공연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일로품바보존회는 각설이문화복원과 각설이품바학교, 일로품바 예술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학과 아픔이 녹아있는 품바를 보면서 무더위를 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선상에서 쏘아 올린 별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2만4000급 씨스타크루즈호가 지난 4일 밤 목포 신안비치호텔 앞 해상에서 선상 불꽃놀이 행사를 벌였다. 씨스타크루즈호는 오는 17일 밤 9시에도 미항 목포를 알리기 위한 선상 불꽃놀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8년만의 흥행... 목포 해양문화축제 인기 비결은

옛 선창모습 재현 '해상 파시'

시민화합 '어등 페스티벌' 등

'해양문화 정체성' 확립 평가

6일 막을 내린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7전8기 끝에 흥행 대박을 일궈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유망축제에 선정된 첫 해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두 더욱 뜻 깊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목포해양문

화 축제는 그동안 '해양문화'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축제의 주 무대를 평화광장에서 삼학도로 옮겨, 육지와 해양을 잇는 도교위에 옛 선창의 모습을 재현한 '해상 파시'가 설치되면서 이 같은 우려와 비난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해양문화의 정체성'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다가 이 도교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아 8년 정된 첫 해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두 더욱 뜻 깊다. /목포=임영훈기자 lyc@

또 평화광장에서 개최했을 때는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으나 삼학도로 옮긴 올해는 민원 원천 차단 효과와 함께 공간적 제약도 극복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 첫 선을 보인 'Again 1897 어등(漁燈) 페스티벌'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1897개의 어등을 만드는데 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초·중·고교, 관내 기업 등이 참여해 축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시민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열정의 디제이 파티'는 청소년들

은 물론 40~50대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면서 제1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요트를 타고 야경과 함께 와인을 즐기며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요트 여행인 목포 밤바다 야경투어는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해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아쉬움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 무대가 삼학도로 옮겨오면서 동명동 어시장, 건어물 상가 등 선창 일대 경기가 활기를 띠었으며 북항 일대 숙박업소도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선창 주변에 정박된 선박들이 집어등을 켜고 도교 양쪽에 풍어제 깃발을 세웠더라면 축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을 것이라는 아쉬운 지적도 제기됐다. /목포=임영훈기자 lyc@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 무단방류 없어질까

새만금 수질악화 주범... TF팀 구성 집중단속

농가 사육두수 감축 저조해 실효성은 의문

익산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축산단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근절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해 근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왕궁축산단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사 매입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육두수 감축 효과가 미미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6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왕

궁축산단지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0만5000여 마리로 마리당 하루 평균 8.6L 씩 매일 903t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 가축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은 700t으로 나머지 200여t이 처리되지 못하고 무단방류 되면서 새만금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환경위생과, 주택과, 축산과, 왕궁면사무소 등 분야별 공무원 9명으로 태스크포스팀

을 구성해 현장에서 무단방류 규제 및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 시설용량에 맞게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하고 불법 건축행위, 무단방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그렇지만 2010년 정부의 왕궁수질 개선대책 발표 이후 전북도가 꾸준히 돼지 사육 농가 및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300여억원을 들여 251개에 달했던 축산 농가수를 59개로 줄였지만 사육 돼지 수의 감소율은 불과 6.2%에 그쳤다.

이는 정착농원 내 한센인 사육농가

들이 돼지 사육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현재 왕궁축산단지에는 일반인 이외에 60여년전부터 정착한 한센인 600여명이 양돈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육두수를 보면 일반인의 사육두수가 23% 감소한 데 반해 한센인들이 사용하는 돼지의 수는 87%나 급증했다. 이는 하림, CJ, 목우촌 등 국내 대표적 사료·위탁축산 농가들이 한센인 사육농가에 대한 위탁 사육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사이 이들 기업에서 위탁 받아 대량 사육에 나선 한센인 농가 41개(사육두수 3만5400여마리)에 이른다. 때문에 이들 농가에서 나오

는 폐수가 전체 농가 폐수발생량의 30%를 차지,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한센인 농가들이 일반 농가와 달리 축분 수집과 운반 처리 수수료의 60%를 지원을 받는 점을 축산 기업들이 악용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현재 왕궁축산농원 내 한센인 사육농가에게 지원하는 '처리 및 수집·운반수수료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휘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단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고창드림팀-연예인 'fc뷰릿시스템'팀 9일 축구경기

고창군은 9일 밤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으로 구성된 축구팀 'fc뷰릿시스템'과 고창드림팀이 신나는 경기를 펼친다고 밝혔다. fc뷰릿시스템은 탁재훈을 단장으로 이수근, 한민관, 이현도, 김승현 등 15명의 연예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기는 생활체육과 엔터테인먼트

를 결합한 것으로 고창군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색 이벤트성 체육행사다. 특히 부대행사로 걸그룹 스피카와 오로라 공연이 이어지고 그름사운드 무대가 함께 펼쳐져 휴가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국 유소년 장사씨름대회' 내일까지 군산대체육관

"2013 전국 유소년 장사씨름대회"가 6일 군산대체육관에서 개막해 8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씨름 인재의 발전을 기원하는 한마당 큰 잔치와 함께 열려 주목된다.

KBS기 전북 초중씨름대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대회로 관을 키워 펼쳐지며 제30회 KBS기 전북도 초등학

생 2부리그 장사씨름대회도 겸해 진행된다.

전북의 씨름인재 발굴과 육성의 산실인 KBS기 전북 초중장사씨름대회는 이번 대회 성공 여부에 따라 전국 대회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를 기념해 전국 대회로 관을 키워 펼쳐지며 제30회 KBS기 전북도 초등학

남원시 보건소 '어르신 힐링 국악스쿨' 운영

남원시 보건소는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 '어르신 힐링 국악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악스쿨은 28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4시 동문농협 2층에 자리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남원의 상징인 흥겨운 국악 한마당, 웃음·미술 치료,

향기요법, 사교댄스 등 놀이와 즐거움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국악스쿨 프로그램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의 걱정·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북도 올 하반기 공공형어린이집 10곳 공모

전북도는 2013년 하반기 공공형 어린이집 10곳을 공모한다.

도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1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달

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10곳이 선정되면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70개소로 늘어난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인건비성 운영비 명목으로 정원규모에 따라 매월 116만원에서 87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서 민족 정기 끊으려 설치한 '목돌' 발굴

가로 120cm 볼트형 석물 5개

남원문화원, 노치마을에 이전

일제 감점기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끊으려 설치했던 목돌(목 조인석)이 발굴됐다.

남원문화원은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신모계 집 정원석으로 묻혀 있던 목돌 5개를 발굴해 백두대간이 지나는 노치마을에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목돌은 볼트형으로 된 5개의 석물로 하나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95cm, 두께 40cm 내외이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노치마을 앞들은 덕음산에서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면 목에 해당한다.

일제는 이곳에 길이 100m, 폭 20m, 깊이 4m의 방죽을 파 지맥을 끊고



이병채 남원문화원장이 가정집에서 발굴한 목돌을 가르키고 있다.

그 안에 목돌 3기를 설치, 목을 조여 숨을 못 쉬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잠금석을 설치해 민족정기를 단절하는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문화원측은 설명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백두대간은 물

론 한반도의 주요 길지(吉地) 혈맥에 쇄말뚝을 박거나 인위적으로 길을 내는 방법으로 우리의 민족정기를 차단해왔는데 거대한 석물을 설치해 맥을 차단한 경우는 처음이다.

그동안은 하섬의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정적인 정보들만으로